

01 제3회 베를린 국제문학축제 개최

제3회 베를린 국제문학축제가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독일의 문화도시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역사는 짧지만, 세계 200여 명의 저명작가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독일의 문화재단기금이 재정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국가는 그리스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작가를 비롯하여 각국의 작가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귄터 그라스, 라스 구스타프손, 마틴 발저 등이 참가의사를 밝혀 왔다. 국내 작가로는 소설가 이호철 씨와 시인 고은 씨가 초청받아 지난 4월 베를린 국제문학축제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율리히 슈라이버를 만나기도 했다.

9월 10일 베를린리 앙상블에서 시작되는 행사의 개막강연은 인도 작가 사시 다로가 맡았으며, 개막낭독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임레 케르테스가 독일 주어캄프 출판사에서 9월에 출판되는 작품 《Liquidation》을 낭독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심포지엄, 워크숍, 강연회, 영화, 콘서트 등 문학프로그램과 연계한 부대행사가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02 미국 출판계 해리포터 특수누려

해리포터 열풍이 미국 출판사의 매출액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하드커버 도서매출이 654.8% 증가, 1억 5천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판매수익을 기록했다. 교과서 분야도 작년 대비 2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해리포터 열풍은 인접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 페이퍼백 도서매출도 함께 증가했다. e-book과 오디오북의 매출도 작년 대비 3배와 2배가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03 전 세계를 도서관으로, '북크로싱'의 열기 영국으로 전해져

영국 맨체스터 시의 카페와 선술집, 버스와 택시 안, 그리고 공원 벤치 등에 책들이 놓여진다. 어떤 경우에는 조각상의 손에 들려 있기도 할 것이다. 그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저를 읽어 보세요', '저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그 책을 분실한 책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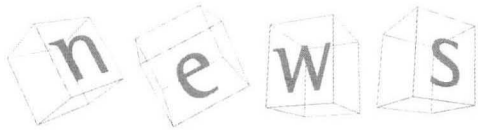
영국 맨체스터 시에 일어나고 있는 '북크로싱(Book-crossing)' 열기가 뜨겁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도 불리는 북크로싱은 과연 무엇이기에 맨체스터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가?

북크로싱은 미국의 론 혼베이커가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컨셉을 갖고 시작한 문화운동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숨은 책 발견하기, 책을 읽고 다시 숨겨두기'라 할 수 있다. 북크로싱 웹사이트(bookcrossing.com)에서 고유번호를 등록받은 이는 자신의 책에 그 고유번호를 기록한 뒤, 책을 두고 싶은 어느 곳이든 두면 된다. 그 책을 발견한 사람이 북크로싱 웹사이트에 접속, 책에 적힌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지금까지의 '책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전 세계를 도서관화하겠다는 북크로싱은 2001년 4월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북크로싱을 통해 방출된 도서는 대략 50만 권, 현재 14만 6천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04 중국, 여주얼린의 투쟁

중국에서는 도서를 출판할 경우 모든 도서에 대해 도서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의 도서검열은 이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물이 든 중국 역시 도서번호 발행을 둘러싼 '돈 되



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진행하는 이는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이다.

여 주얼린은 유명 프로젝트 매니저이다. 그는 금서《상하이 베이비》의 작가 웨이 후이의 첫 단편소설을 출판했다. 여 주얼린이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싸우고 있을 때, 웨이 후이는 그의 지원에 힘입어 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여 주얼린은 작가의 성공은 작품판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상하이 작가협회와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천여 명의 회원작가들 중 8백여 명은 몇 년간 발표한 작품이 없으며, 작가의 2%만이 수익분기점인 3천 부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상하이 작가의 현실이다. <제3의 길>이라는 논문을 통해 전체 문화정책을 비판하기도 한 여 주얼린은 현재 전체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출판계를 내세운다. 상하이에는 43개의 출판사가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는 물론 이거니와 흥미로운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여 주얼린은 출판계에 시장경제도입과 상하이에 문화특수 지역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여 주얼린의 이러한 투쟁이 중국 출판계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05 러시아 《닥터 지바고》 논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대표 작가들 간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 학과과정에서 제외됐던 고전문학들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저명 작가 13명이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2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필수도서 목록에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고전 《닥터 지바고》를 포함한 일부 작품들을

제외하려는 계획에 대해 항의하였다. 작가들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시절 숙청대상이 되었던 것들을 다루는 문학작품을 관료들이 못 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도서들은 '추천도서'로서 교사의 지도 아래 가르쳐져야 하며, 2005년 새로운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들의 목소리다.

엘친 집권 시기에 크렘린은 힘들었던 공산주의 아래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한 반면, 푸틴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영광에 대한, 그리고 따뜻한 향수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자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06 영국,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지

유럽위원회가 '인쇄물은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이라 발표한 이후에도 영국은 도서에 대한 영세율을 계속 지켜갈 전망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인하세율의 최소 수준을 올리려는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최소 세율로 5%정도를 인상시키려는 반면, 영국은 여전히 영세율을 고집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도서에 대한 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유럽위원회와 영국의 추후 힘겨루기가 주목된다.